



무디스, 유럽 전체 신용등급 위험 경고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무디스는 유럽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유로존 회원국들(17개국)은 물론 EU 내 모든 국가들(27개국)의 신용등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함.
-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놓고 주요국 정상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11월 25일 현재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 모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.
 - 2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한때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인 7.923%까지 상승하였고,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위험선으로 거론되는 7%를 상회함.
 - 스페인 국채 금리(2년 만기)는 유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6%대(6.1%)에 진입하였고, 프랑스 국채 금리(2년 만기)는 한때 3.75%까지 올랐다가 3.69%로 마감됨.
 - 유럽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 국채 금리(10년 만기)도 0.08%p 오른 2.27%를 기록하여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.
- 신용도가 높은 유럽의 은행들마저 심각한 달러 부족에 처하면서 유럽 은행들 대부분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3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(LIBOR)도 급등한 가운데 11월 25일 현재 3개월 만기 미국 국채와 리보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0.5%p에 근접함.
- 무디스는 11월 28일 성명을 통해 단기간 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.
 - EU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EU가 신용 시장을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디스는 유럽 각국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이며, 그 시기는 2012년 1/4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.
 -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룩셈부르크 등도 신용등급 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지 못할 전망이다.

■ 무디스는 유로존이 붕괴될 상황에는 처하지 않겠지만, 유럽 각국의 적기 공조체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이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.

- 무디스의 경우 현재까지는 ‘더 이상의 디폴트 우려 없이 재정위기가 해결될 것’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- 그러나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럽 정치권의 공조체제는 경제가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겨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 금리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,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.
- 또한 무디스는 유럽 국가들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디폴트 가능성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함.
- 연쇄 디폴트는 디폴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것으로 진단함.

(Bloomberg, 11/28)